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24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24년 5월 27일
- 라.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 2. 제안이유

- 가. 고금리,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대환대출 확대 및 소액 대출자금 신규편성 등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함.
- 나. 이에 따라 추가 보증공급을 위한 보증 및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2024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하며
- 다.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나. 주요사무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4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sup>1)</sup>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추가출연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현황

-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 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에 설립됨.
- 현재 동 재단은 본부(2부문 2실 6부 3센터)와 지점(4지역본부 25지점 6센터)에 임원 3명, 정규직 475명, 기간제 145명을 포함하여 62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

### < 서울신용보증재단 인력 현황 >

(2024.4월 말 기준)

구 분	정 원 內					정 원 外		합 계
	소 계	임 원	정규직			소 계	기간제 근로자	
			일반직	전문직	지원직			
현 원(명)	478	3	411	27	37	145	145	623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시는 2024년도 본예산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공급(총 2조 8천억원 규모)을 위해 228억원(신용보증 재원 122억원, 보증료 보전 106억원)을 출연하였으며, 5월말을 기준으로 1조 9,234억원의 보증공급을 지원하였음.

### < 2024년 신용보증 지원실적 >

(2024. 5월 말 기준, 단위: 건, 억원)

구분	보증공급		
	연간계획	실적	달성률
보 증 건 수	98,000	65,788	67.1%
보 증 금 액	28,000	19,234	68.7%

-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3고 현상(고환율·고금리·고물가)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영업악화가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민생경제대책회의(2024.4.30.)를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 내 대환대출사업(희망동행자금) 증액, ▶인터넷전문은행 협력 대출자금(신속드림자금) 신규 편성 등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추가 출연의 적정성 검토

- 동 동의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환대출사업(희망동행자금)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협력 대출자금(신속드림자금) 신규편성

등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113억 7천 5백만원(신용보증재원 67억원, 보증료재원 46억 7천 5백만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출 연 금	34,175	22,800	11,375

- 이 중 희망동행자금은 상환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자금으로, 당초에는 2024년에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5월말까지 1,549억원(51.6%)이 지원되어 연말까지 4,000억원 이상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임.
- 또한 신설되는 신속드림자금은 750억원<sup>2)</sup> 규모의 자금을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을 통한 비대면 간편심사 방식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내용임.

### < 추가경정예산 지원 사업 >

구분	희망동행자금	신속드림자금
지원대상	경영애로 소상공인	저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조건	최대1억원, 2.0% 이차보전, 보증료 전액지원,	최대 3천만원, 1.8% 이차보전, 보증료 50% 지원,
당초 지원규모	3,000억원	-
추경예산안	1,000억원 추가지원	750억원 신규지원
소요예산	101억원	12억 7천 5백만원
신용보증 재원	67억원 <sup>3)</sup>	- <sup>4)</sup>
보증료 재원	34억원 <sup>5)</sup>	12억 7천 5백만원 <sup>6)</sup>

2) 신속드림자금 공급규모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협의 중으로 변동 가능하며, 동 검토보고서는 출연 동의안의 산출 내역에 따른 750억원을 기준으로 작성함.

- 동 재단의 보증공급 규모는 이와 같은 추가 출연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1,000억원이 증액<sup>7)</sup>된 2조 9,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운용배수 역시 당초보다 0.03배 늘어난 10.36배 수준으로 변동될 예정임.

### < 최근 5년간 보증공급 규모 및 운용배수 >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예상)	
					추경 前	추경 後
보증공급액	51,249	55,707	41,113	31,349	28,000	29,000
보증잔액 (A)	79,313	103,199	106,983	97,313	87,000	88,000
연간 출연금 조성액	2,302	1,900	1,702	1,191	822	889
서울시 <sup>8)</sup>	810	809	534	100	122	189
정 부	102	41	338	129	-	-
자치구	146	330	150	113	50	50
금융회사법정출연	49	101	115	120	100	100
금융회사 등 협약출연	1,195	619	565	729	550	550
당기순손실	926	788	810	1,860	1,860	1,86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13	-13
기본재산(B)	7,764	8,876	9,785	9,477	8,426	8,493
운용배수(A/B)	10.22	11.62	10.93	10.27	10.33	10.36

※ 기본재산 = 전년도 기본재산+당해연도 출연금-당해연도 당기순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차액분)  
 ※ 상기 내용은 업무계획에 기반한 예상 수치이며, 보증공급 및 부실 발생 추이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동 동의안은 ‘민생경제 회복’ 을 표방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악한 금융환경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3) 1,000억원(공급액) ÷ 15배(법정 운용배수)

4) 인터넷전문은행 출연을 통한 보증재원 확보, 추후 출연 금액 확정시 출연실적 반영 예정.

5) 1,000억원(공급액) × 1%(보증료) × 3.4년(평균 상환주기)

6) 750억원(예상 공급액) × 0.5%(시 지원 보증료) × 3.4년(평균 상환주기)

7) 2024년 당초 보증공급계획은 서울시 자금공급계획 대비 높게 편성되어 동 출연에 따른 신속 드림자금은 기존 보증공급 금액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8) 신용보증 재원 목적의 출연금

취약경제주체들에 대한 추가 보증공급을 통해 금융지원 대상자 확대, 대출상환 연체 해소, 금융부담 완화 등의 정책적 수단을 신속히 전개할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신속드림자금의 경우에는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부실채권의 비율이 높아<sup>9)</sup> 동 재단의 재무건전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2023년도에 시의회에서 의결된 출연동의안에는 출연금으로 463억원이 반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24년도 본예산에 228억원만 편성함으로써 시의회의 심의권한을 훼손하였는 바, 매년 반복되는 당해연도 출연동의안의 출연금 규모를 준수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출연금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혜진	02-2180-8057

9)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금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채권(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시중은행 0.27%, 인터넷전문은행은 0.68%임(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5.31.) “24. 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